

## 아시안게임에서 기도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 기독신우회 소속 한국 선수들 30여 명 출전

2018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가운데 기독신우회 소속 30여 명 이상의 크리스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18일 개막해 오는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1만1천 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금메달 465개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이중 한국대표팀 779명은 39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국 레슬링 사상 첫 부부 국가대표로 알려진 공병민 선수는 19일 밤 남자 자유형 74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타르의 아브라함 압둘라만에게 10-0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다. 이젠 아내 이신혜를 위해 기도한다.

기독교 선수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종목은 효자종목으로 알려진 유도다. 유도 대회 일정은 29일부터 31일까지로 안바울 선수와 조구함 선수를 필두로 김민성, 한희주, 정보경, 김지정, 강유정 선수 등이 금메달을 노린다.

앞서 세계랭킹 1위로 지난 리우

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안바울 선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던 리우올림픽 2관왕의 주인공 LH 양궁팀 장혜진 선수의 활약 또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 앞도적인 기량으로 패조의 스타트를 끊은 한국 양궁대표팀은 21일 예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대거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중 장혜진 선수는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3관왕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골키퍼 장수지 선수를 필두로한 여자하키 조은지, 이유리, 신혜정 선수의 활약도 기대된다. 특히 숨은 효자 종목인 여자하키는 아시안게임에서 다섯 차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경기를 앞둔 장수지 선수는 “선수들의 부상이 많다. 부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도요 올림픽 티켓을 석권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한국 핸드볼 에이스 정유라(대구시청) 선수도 국가대표기독신우회에 소속돼 믿음 안에서 경기를 준비하기로 유명하다. 앞선 리우올림픽 경기에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성경말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외 수영 배영 종목에 이주호 선수, 수구 대표팀에 박정민, 이선욱, 김동혁 선수, 배드민턴 대표팀에 장예나와 성지현, 공희용, 펜싱에 임주미, 이혜인, 최수연 선수와 리듬체조의 김한솔, 황서영 선수 등 기독교 선수들이 포진했다.

한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모토로 내걸고 16일간 진행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65개 이상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한다. 대회 5일차인 현재 종합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 한국 선교 발전 위해 헌신 다짐

### 플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금년 말 은퇴 예정

한국교회가 낳은 자랑스러운 선교학자인 박기호 교수가 금년 말 은퇴한다. 세계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플러신학교,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신학교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 플러의 교수로 22년 재직하고 은퇴하는 것이다. 올해 70세를 맞이하는 그의 은퇴식은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박 교수는 종신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았다. 아세아연합신학대 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석사 학위(Th.M.)를 취득한 후, 1981년 GMS 소속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15년간 필리핀장로회신학대학교를 설립해 섬기면서 여러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더 잘해 보겠다”는 각오로 안식년을 내어 열심히 공부해서 플러 신학교대학원에서 석사 학위(M.A.)와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학위에 더해 필리핀 선교 사역의 열매까지 인정받으면서 ‘학문과 현장’을 모두 갖추었다는 강점 덕에 플러 신학교대학원 아시아선교학 교수로 초빙 받았다. “플러 교수 자리라면 오고 싶어하는 유능한 사람이 많을 테니 다른 사람을 찾아 보라”고 거듭 말했지만 학교는 끝까지 박 교수를 붙잡았다.

그렇게 1996년부터 수많은 후학들을 키워냈다. 신학교대학원 안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한국어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었다. 그는 타문화권 교회 개척, 한국 선교역사, 한국교회사, 선교와 제자도, 선교의 당면과제 등을 강의하는 가운데 서구적 선교 방법론을 반성하면서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겸손함, 은사를 따른 분화된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과 동반자적 사역을 한인 선교사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쳤다. 강의와 연구, 책



올해로 교수직을 은퇴하고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박기호 교수를 그가 22년동안 몸 담았던 연구실에서 만났다.

저술로 바쁜 중에도 아시아선교협의회장, 동서선교연구개발위원장, 아시아선교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아시아 선교에 헌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달려온 22년을 이제 정리한다. 박 교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며 주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향해 “자기 사역, 자기 교회, 자기 교단에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남들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는 랄프 윈터 박사의 좌우명을 그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일단 한국교회의 선교 발전을 위해 쓰임 받길 기도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교회를 충실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 또 플러의 시니어 교수 자격으로 여러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 선교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박 교수의 은퇴 후 사역도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 크리스천에이드, 홍수 난 인도 케랄라 지역 긴급구호 시작



주민들이 홍수로 인해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건너고 있다. ©크리스천에이드

기독교 자선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는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인도 케랄라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를 시작했다. 이

번 대홍수로 약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만 명이 집을 잃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식수, 의료품, 의약품, 위생시설, 피난처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크리스천에이드의 구급대원인 램 키산은 “내가 이곳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은 100년 동안 보지 못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깨끗한 물, 피난처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집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한 양식 공급도 긴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긴급 프로그램의 관리자 시바니 라나는 “수위가 높아서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세계한인재단이 주최하고 박용만기념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생일 기념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 이 자리에는 세계한인재단 한국 홍보대사 및 차세대 임원으로 5명의 학생이 공로상을 받았다.

## 세계한인재단 “대한민국 생일은 8월 15일”

### 대한민국 생일 기념세미나 열려

대한민국이 ‘국가 요건’을 온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진정한 건국절로 기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생일 기념 세미나’가 13일 한국 육군회관 1층 동백실에서 열렸다.

세계한인재단(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이 주최하고 박용만 기념재단이 주관한 세미나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자 세계한인재단 명예총재인 이인수 박사와 사모, 박용만 장군의 후손으로 박용만기념재단 명예총재인 박경원 장군(육사 7기, 경북도지사 및 강원도지사 역임), 문화체육관광부 전 제2차관 박종길 세계한인재단 한국회장, 예비역 육군대령 이윤규 국방대 교수, 에픽소프트 박창재 대표(월간 소년 영웅 발행인), 세계군인태권도연맹 임성섭 총재,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 조지훈 회장, 세계한인재단 내 세계한인여성경제협회 이화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풍요한 선진국으로 역사를 주도하던 시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우리 민족이 세운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인 대한민국 생일을 8월 15일로 보고, 이 날을 공휴일로 보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행복한 나라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1부 식전행사에서는 특별히 다 음세대를 초청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기여하도록 격려했다. 용인의 대부속고등학교 3학년 이연재, 창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노주원,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변수민, 휘문고등학교 2학년 신근우,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유호준(가나다 순) 등 5명의 학생이 한국 전통문화를 영문 번역하여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로 세계한인재단 한국 홍보대사 및 차세대 임원으로 공로상을 받았다.

제2부 기념세미나는 도진명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이인수 박사의 환영사, 박경원 장군, 박종길 회장의 축사, 조지훈 목사의 축사 낭송, 미국 세인트미션대학교 강태욱 교수의 특별 강의로 진행됐다.

이인수 박사는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체성,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사에 기여하는 훌륭한 일류국가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원 장군은 “스탈린 시절부터 6.25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북방문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며 “우리 민족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알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태욱 교수는 ‘인간중심철학의 세계민주화 전략’에 대한 강의에서 “사회 발전은 결국 인간 발전이며, 이는 정신적 생명력, 물질적 생명력, 사회협조적 생명력의 3가지 요인으로 발전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포함한 정신적 생명력으로, 곧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양이기도 하다”며 “인간중심철학에서 민주주의를 계속 개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수준을 높여나가면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나가고 △이 때 반드시 권리와 의무를 통일시키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강점과 장점을 결합시키고 통일시켜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종국적 발전방향은 세계가 민주주의적으로 통일되는 세계민주화”라며 “이를 위해 북한같이 핵무기로 전 인류를 협박하는 야만적 폭력을 없애고, 넘쳐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형성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할 핵융합 발전 성공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꼭 지켜내겠다는 결사의 결의를 하고, 세계 민주화의 성지가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의연한 결심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고봉준 목사가 다큐멘터리와 저서를 들고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 “재소자에서 복음전도자로”

### 25년 교정선교한 고봉준 목사 남가주 집회

25년간 재소자를 대상으로 선교하며 한국에서 교정선교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고봉준 목사(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가 미국 남가주를 방문해 오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여러 교회들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인생 최악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해 목회자가 된 그는 국내의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 집회를 인도할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집회 인도 및 예배, 성경 공부와 상담, 영치금 후원 등 발로 뛰고 있다. 과거에 아내와 함께 생선 장사를 하며 자비량으로 재소자들을 섬긴 일화는 유명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출판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고봉준 목사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수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이야기, 회심한 이야기, 그 후의 사역 이야기 등 자신의 일대기를 책과 다큐멘터리

에 담아냈다. 1992년부터 재소자 사역을 감당해 온 고봉준 목사는 교도소와 경찰서 유치장까지 포함하면 약 2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했다. 처음 1천회 정도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교정복지선교회 강사로 활동했다. 이후 500여 회의 집회는 자비량으로 집회를 인도했다. 설교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3년간 트럭에 생선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해 번 돈으로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고 목사는 “재소자들에게는 저의 과거가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란 메시지가 된다”며 “부끄러운 과거를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LA백송교회, LA씨티교회 등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고 목사의 집회를 원하는 교회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213-739-0403

## 시인의 눈으로 살펴 본 시편 23편

오는 8월 25일(토) 오전 10시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가 “시인의 눈으로 살펴 본 시편 23편”이라는 주제로 시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강사는 목사이자 시인인 강태광 목사(미주 윌드웨이)다.

장소는 로텍스 호텔(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이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행사다.

한편, 이번 시문학 특강은 문인협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하고 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여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K-9 학년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http://www.e-nca.org) [info@e-nca.org](mailto:info@e-nca.org)



동부사랑의교회 한어대학청년부 멤버들

### 청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동부사랑의교회, 청년의 삶 세미나 개최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는 8월 26일부터 매달 남가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부사랑의교회 한어대학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청년의 삶, 삶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해당 세미나를 주최하며, 이 세미나는 재정관리, 가정, 정신건강, 성교육 등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4가지 분야를 주제로 8월부터 매달 한 번씩 시리즈로 개최된다.

첫번째로 8월 26일, 연방정부주택국 인증 비영리단체인 살롬센터의 대표인 이지락 소장이 '크리스천 재정관리'에 대해서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크레딧 쌓기, 세이빙의 중요

성, 청년 때의 꼭 필요한 재정관리 등이다.

두번째 강의는 9월 30일 CMF 선교회 대표이며, 크리스천 결혼교실을 진행하는 김철민 장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청년의 때에 꿈꿔야 하는 가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제로 결혼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세번째 강의는 10월 28일 월드미션 대학교 교수이자 풀러신학교 임상심리학 박사인 김경준 교수가 '정신건강'을 주제로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네번째 강의는 11월 18일 청소년·청년·가정 사역자이자 코스타카인 박승용 장로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주제로 이성교제에서의 고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동부사랑의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신원 강도사는,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4가지 영역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가르치고 삶이 변화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남가주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714-330-0674

www.esdream.com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데니스 홍 소장

### 아름 있어도 긍정으로 일어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세미나 열려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소장의 세미나가 최근 남가주에서 열렸다. 홍 소장은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의 신기술이 하나씩 세상에 발표될 때마다 국내외 언론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이 시대의 최고 지식인 중 하나다. 현재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로봇 연구소 '로벨라'의 연구소장이다.

그는 연구소 설립 4년 만에 2007년 미국국방부고등연구계획국이 주최한 '다르파 어반 챌린지' 무인자동차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특유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2009년 글로벌 과학 전문잡지(파플러 사이언스)에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 소장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미국 최

초의 휴먼노이드 챌리와 다윈 등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로봇을 연이어 개발해 세계 최고의 두뇌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2014년 UCLA 교수로 임용돼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간 극찬을 받았던 로봇들을, 믿고 의지했던 동료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고 했다.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일어났다고, 성공 뒤에는 큰 아픔이 따른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아픔이 있었기에 '인간을 향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바르게 잘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기심과 창의력, 메모의 습관 등을 강조했다.

헬비 권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엘림카페에서 열린 소망 세미나

### 아름다운 삶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의 소망교육 세미나가 어느새 173차를 맞이하였다. 제 173차 세미나는 8월 19일(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소망부(회장 진수길) 주관으로 교회 엘림카페에서 개최됐다. 소망부 소속의 회원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참석한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최경철 사무총장이 긴급연락처카드와 소망유언서 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참석자들 가운데 자원자를 받아 상황을 진행하였고, 이어 김미혜 사무국장이 죽음준비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의료지시서를 포함한 소망 유언서 작성에 대해 강의하였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마무리 강의에 나선 유분자 이사장은 화해와 용서가 삶의 마무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실제 예를 들

며 설명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한편,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50명이 긴급연락처카드를 신청하여 긴급연락처카드의 중요성에 동감을 표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교회, 기관, 단체 등의 찾아가는 세미나 요청을 받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죽음준비, 치매예방, 웃음치료, 성공적 노화교육 등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7>

### 세계 한인선교사 영적 네트워크와 김정한 선교사의 헌신

필자는 목회자다. 그러면서 선교에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조금 더 앞장선다고 여겨져서인지 이렇게 신문 지면에 선교칼럼을 쓰게 되었나 싶다.

또 한 가지, 필자는 목회자이면서 세계 한인선교사들의 스마트폰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곳곳의 뉴스와 정보 그리고 교제와 기도 제목 등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개인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소식과 기도제목 등을 보면서 많은 영적 도전을 받곤 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수가 어느 때는 400여 분이 넘었다가 현재는 350여 분이 이 카톡을 공유하고 있다.

이 카톡을 10여 년 전부터 오픈하고 운영하는 분이 GMAN의 대표인 김정환 선교사이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미주에서 선교 관련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며 선교 동원과 선교사 네트워크 그리고 선교사 파송 및 후원을 담당하며 여러 가지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KWMC 준비위원, KWMF 사무총장 등 세계 한인 선교사 관련 큰 직책들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사역을 하며 쌓아온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의 친분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카톡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사들이 영적 동맹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더 유용하겠다는 생각에, 이런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카톡방을 개설하고 이 방을 운영하며 섬기고 있다. 필자는 이 카톡방의 이름을 세계 한인선교사 영적동맹방이라고 지었다. 교단 교파 모든 선교단체들을 초월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한 목적 아래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나라의 상황과 기도제목들을 실시간 나눈다.

어느 땐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맬 때 기도제목이 올랐다. 소위 말하는 '세계가 하나된 별떼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은혜로 그 자녀가 회복되고 어려운 수술 후 건강해졌다는 소식, 그때 한 선교사님이 "우리 조금씩이라도 후원 현금합시다" 하는 소리에 십시일반 세계의 돈이 모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여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모습에 필자는 감동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의 어려움에 다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격려에 다시 힘을 내어 승리하는 모습들, 예멘의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순교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한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70이 되어 은퇴하시는 선배님께 모두들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오랫동안 타국에서의 사역으로 친한 벗들이 이 카톡방에서 우애를 나누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자녀가 홀로 대학을 졸업할 때 같이 눈물로 기뻐해 주고,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의 나눔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기도 한다.

인품있는 연장자 선교사님이 겸손하게 나누시는 덕담들, 후배들이 그 말의 영적 권위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모습들, 그런 교제 가운데 네트워크를 아름다운 모임으로 안내해 주는 분이 김정환 선교사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을 자상하게 소개해주어 그분의 귀한 사역을 격려하고, 선교사님들이 미주지역을 방문할 때 영접해 주고, 또 필요할 때면 선교지에 직접 방문하여 그곳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소식을 나누는 등 참 쉽없이 이 네트워크를 위해 봉사한다. 사례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 영적 네트워크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선교사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에 보람을 갖는다.

필자는 이런 영적 동역자들이 세계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이 든든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혹시 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도 선교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는 김정환 선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714-350-6957)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코스타리카의 행복! 프라 비다(Pura Vida)!

영국의 '신 경제재단(NEF) 연구소가 발표한 지구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에 코스타리카가 수년간 1위를 지켰습니다. 신 경제재단(NEF)의 행복지수는 유엔의 행복지수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양적 경제 지표가 아닌 복지, 기대수명, 사회적 불평 등의 지표에 근거해 행복도를 측정한 다음 그것을 생태 발자국으로 나눈 값입니다. 생태 발자국이란 자원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환산한 것입니다. 즉 생태계를 지키는 국가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NEF는 현재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입니다.

코스타리카는 1502년 콜롬버스가 발견했고 1821년에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카리브해와 서쪽으로는 북태평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절반, 인구 500만 남짓한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는 평화와 행복을 자랑합니다.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코스타리카는 평화를 표방하는 중립국입니다. 나아가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민 복지에 사용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 문화와 사회제도 속에서 코스타리카의 행복비결을 정리합니다.

첫째, 코스타리카는 평화지향의 문화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전을 경험했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아픔의 역사를 가졌지만 코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타리카는 용감하게 군대가 없는 비무장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평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성공적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아웅산 테러사태 이후 북한과 수교를 단절했습니다.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코스타리카 국가정신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가 가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코스타리카의 행복입니다.

둘째, 코스타리카는 친환경적인 국가를 지향합니다. 코스타리카는 평화를 선택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해안선(Costa)이 풍성하고(Rica)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국토의 51%가 숲으로 구성되어 풍성한 숲의 나라입니다. 무려 70개의 국립공원은 면적이 국토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숲을 잘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은 육성하지 않고 금광 채광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 국가 정책과 문화가 코스타리카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갑

니다. 셋째, 코스타리카는 복지국가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오래전에 무상 교육을 실천하여 국민들의 문자 해독율이 95%에 가깝습니다. 문맹률을 낮추는 것은 복지 국가의 기초입니다. 코스타리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미국보다 더 나은 의료복지와 노후 보장 제도를 자랑합니다. 탁월한 의료 서비스와 노후 보장제도는 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은퇴자들이 코스타리카로 물러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기후와 환경을 가진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미국 등으로 탈출합니다. 반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은퇴자들이 노후의 삶을 보내기에 좋은 나라로 알려집니다. 코스타리카는 행복을 가꾸는 나라입니다. 개인은 행복을 누리고 정부는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건강한 행복 사회 모델을 보여 줍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프라 비다(Pura Vida)!'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실생활에서의 의미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참된 인생 혹은 순수한 인생(Pure life)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을 순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프라 비다!'를 외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웃의 행복을 빌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한국 세종 은누리교회 선우권 목사가 13일, 14일 양일간 토라 민수기 말씀 강해 세미나를 주 예수산성교회(양수용 목사)에서 개최했다.

강해 내용은 1.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개괄되는 신비한 원리 2. 히브리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랍비 스타일 설교를 통해서 영성 설교를 하는 원리였다. 선우권 목사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한 교회가 3년 만에 1천 명을 넘기고 현재 2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대규모 건축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사고로 푸는 설교를 듣고자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 혹은 토라 강해와 관련된 문의는 주 예수산성교회로 하면 된다. 주소)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전화) 818-434-1253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한 선우권 목사(왼쪽에서 세 번째)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 신입회원 환영회 및 시문학 특강

##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강사** :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시집 :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 아름 안고  
수필집 :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한국일보(샌프란시스코)와 다수 언론지에 고정 칼럼 기고  
현)기독교일보 행복칼럼, 침례신문 문학칼럼
- **제목** : 시인의 눈으로 살펴본 시편 23편
-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로텍스 호텔(Rotex Hot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회장 : 정지윤 T.(213)249-0771  
부회장 : 김상분, 허철  
사무국장 : 조애영

# 베가모 교회와 날선 검

요한계시록 2:12-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오른 손으로 붙들어 세우심으로 그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가꾸어 하늘소망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가꾸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가꾸어 가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준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늘 소망 가꾸어가게 하는 교회에서 양날 선 검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와 짝하여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모습으로 범죄와 타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칼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3:22에 일곱 교회가 전형적 모형으로 소개되면서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문맥 가운데 그 교회의 실질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베가모 교회 목자에게 편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가모라는 도시는 내륙도시로서 서머나 교회에서 26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문화와 상업이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본문에서 '사단의 위'로 표현된 여러 가지 우상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마다 무녀들이 있으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서 흑세 무민(感世誣民)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로마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전각을 두 개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에 초청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 잡혀 가지 않기 위해 피신하거나 굴속으로 기도하려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 같이 참여해서 절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베가모 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는 성격이 강직하고 예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삼분의 일 정도는 이 목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절대로 미신 우상에게 절하거나 나쁜 죄들을 짓지 않았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신앙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쉽게 어울리고 휩쓸려 본문 14-15에 기록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안디바 목사도 황제숭배를 위해 제사드리는 제단에 초청을 받게 되고 결국엔 끌려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믿음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음식과 술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안디바를 죽임으로 황제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어떤 처결을 받는지 본보기로 삼고 싶어했기에 낯죄로 얇게 소 모양으로 만든 틀 안에 안디바를 넣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아래에 불을 피워 낯죄를 달궈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베가모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한 체험적 신앙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의 사명을 위해 미리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신 일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왕 발라이라는 자가 산에 올라가 애굽에서 나온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민수기 22:12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가기를 꺼려했으나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좇으니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오고 있는 저들을 저주해서 모두 전멸시켜 달라는 부탁에 하나님께 재차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셨으나 민수기 22:22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타고가던 나귀가 여호와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길을 가니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이때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꾸

짚습니다. 이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사자를 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도록 다짐하고는 발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의 탐욕에 못 이겨서 길을 떠났던 발람의 잘못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번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19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했던 말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발람의 행동을 금지시켰을 때 비로소 눈을 뗀 것입니다.

이후 그는 모압 왕이 세 번씩이나 자리를 바꿔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라에게 이스라엘로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민 31:8).

니골라당의 교훈도 영적인 울무와 함정으로 악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는데 그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이단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는 율법무용지론을 주장했고, 둘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 된다고 해도 육체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악한 것뿐이고 영으로만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 육체는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으며,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심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데 훗날 영지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칼은 심판을 위한 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대다수가 신앙인격도 좃대도 없이 진리도 모르고 하늘소망도 없어 오히려 신성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마귀 앞잡이와 같은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현실적인 안주(安住)와 기회주의자들처럼 세상에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없애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없애 버리시는 멸망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영적 음란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영적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손과 마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회개한다면 심판의 칼날을 준비했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기는 승리가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의 보장을 주신다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미국 신문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수 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제출 마감

-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 허리통증 해결

#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묵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르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서,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파나마 지도자 세미나에 매회 1,000여 명이 넘는 현지 지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 4/14 윈도우 5만 명에게 복음 전파 프라이스교회, 최근 한달간 남미지역 집중 사역

뉴욕 프라이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축구, 뮤지컬, 세미나, 에클레시아 등의 어린이 종합선교 사역이 큰 결실을 맺으며 종료됐다.

'4/14 윈도우 선교사역'은 축구, 뮤지컬, 영어교육사역, 파워하우스, 교회지도자 세미나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국에 잠자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역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프라이스교회의 이 같은 사역은 지난 2009년 김남수 원로목사와 루이스 부시 박사(10/40 윈도우 주창자)의 만남에서 4세에서부터 14세까지 지구상 18.5억명의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허연행 목사는 올해 담임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사역을 지휘했다.

#### 멕시코 3개 도시 축구 통해 복음 전파

올해 축구선교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파추카, 치말화칸,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 3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이영무 목사가 이끄는 할렐루야 축구팀이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세 도시들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프로팀들과 정상급 경기를 치렀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의 독일전 승리로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16강에 오른 직후여서 멕시코 현지인들과 어린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상황에서 진행됐다. 각 경기장에 온집한 멕시코 국민들은 태극기와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 과도타기 등으로 경기마다 응원을 보였다.

축구경기는 현지 주지사 및 기독교 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 영사관의 문영주 영사도 참여해 격려했다. 총 세 번의 게임을 통해 약 35,000여 명의 관중이 참여했으며 입장한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관람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화성경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음료, 그리고 학용품이 전달됐다. 각 하프타임에는 할렐루야축구팀의 율동과 프라이스교회 국악팀 공연이 있었으며, 김남수 원로목사와 허연행 담임목사가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 경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석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로 인해 큰 은혜가 넘쳤다.

#### 케냐 나이로비 '히즈라이프' 공연

프라이스교회가 매년 주력하고 있는 '히즈라이프' 공연이 올해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7월 12일부터 15일간 총 5차례 공연이 진행됐으며 매 공연마다 4,000석 전석이 만석이었다. 현지에서 조명 및 무대소품 등을 준비하는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작팀과 출연진들이 모두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돼 예정된 공연 일정을 무사히 소화했다.

특히 이번 케냐공연은 지난해 스페인 사라고사 공연시 히즈라이프에 헌신한 스페인팀들도 동참해 다국적 출연진으로 구성됐다. 각 공연 후 초정의 시간을 진행했고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 파나마 '어린이사역자 컨퍼런스'

김남수 목사는 멕시코 1, 2차 경기를 마친 후 곧바로 파나마로 이동, 어린이사역자 컨퍼런스를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김남수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와 선교의 핵심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4/14 윈도우'와 '파워하우스' 등에 대해 교회지도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3일간의 컨퍼런스에 매회 1,000여 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석했다.



디딤돌선교회 후원음악회 모습

### 디딤돌선교회 선교후원 음악회 성료 아름다운 찬양과 사역소개로 풍성

노숙자 선교단체인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선교후원 정기 음악회가 19일(주일) 오후 6시 아틀란타새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사중창단 카테고리 4와 디딤돌선교회 찬양팀, 새교회 살롬 성가대가 특별 출연했다. 카테고리 4는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중창단으로 국제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고 각종 대회에서 많은 입상 경력을 가진 팀이다. 음악회는 새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카테고리 4의 찬양, 디딤돌선교회의 사역 비디오 상영, 대표 송요셉 목사의 사역보고, 디딤돌선교회 찬양팀의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 송요셉 목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

"지난 9년간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현재 나눔과 돌봄 사역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으며 부활절에는 나눔과 돌봄축제, 추수감사절에는 겨울 자켓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사역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매년 3-4차례에 걸쳐 재할 및 영성 수련회를 3박4일동안 기도원에서 실시하여 지금까지 19차례 걸쳐 500여 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노숙자들이 직장을 잡아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디딤돌 노숙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위한, 이단기정음치료를 하며, 선교영역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b>LA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909-6473 / www.missionla.org</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p> <p><b>LA씨티교회</b>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323) 833-9090</p> <p><b>씨니킴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b>갈릴리선교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b>갈보리민음교회</b>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b>강진웅 담임목사</b></p>	<p>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b>나성제일교회</b>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b>김문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나성열린문교회</b>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p> <p><b>새일교회</b>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p> <p><b>정병노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b>예일한인교회</b>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b>박은중 담임목사</b></p>	<p>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츠에예배(엘리안에) (소매예배) 오전 11:00</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p> <p><b>풍성한 교회</b>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p> <p>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p> <p><b>박효우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예배 7:00 4부예배 오전 6: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주님의 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p> <p>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충현선교교회</b>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p> <p><b>민종기 담임목사</b></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b>한샘교회</b>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p> <p>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p> <p><b>이순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b>장지원 담임목사</b></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p> <p></p>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p> <p><b>갯스윌연합교회</b>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p> <p>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p> <p><b>이희철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p> <p><b>나성한미교회</b>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p> <p>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p><b>신용환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p> <p><b>남가주새소망교회</b> 예배 성령 선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p> <p>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p> <p><b>김성원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어, 유치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한여청년부 오후 2:15</p> <p><b>남가주살롬교회</b>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p> <p>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p> <p><b>김준식 담임목사</b></p>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도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장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818)383-5887 Tel: (2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시청 대한문 앞에서 8.15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 성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 길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늘 열려 있다

### 8.15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 성회 열려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 '8.15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 성회'를 개최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찾은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피아별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병원), 한요한 목사(예수소망교회 담임),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준비위원장 김한식 목사(한사랑선교회 대표)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 이들이 죄를 토하며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임했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바락 목사(미스바중보기도 담임)와 임경희 간사(미스바 찬양팀 W/L)가 대국민호소문을 낭독했다. 두 사람은 호소문에서 "지금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소중하다고 하면서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여름산타'가 되어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원로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 원로목회자들 '여름산타' 되다

### 시민들에게 시원한 선물 증정하며 사랑 전달

열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 지난 14일 오전, 산타복장을 한 원로목회자들이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앞에서 마스크 팩과 음료수, 떡, 전도지 등이 담긴 선물을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산타로 변신한 8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은 산타 모자와 하얀 장갑을 끼고 약 1시간여 동안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전도지와 함께 선물을 나눠준 여름산타 원로목회자들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같은 덕담을 시민들에게 건넸다.

이번 행사에 여름산타로 참여한 조석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는 "목회현장에서 은퇴한 목사들이 여름산타가 되어 시민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하며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은수 목사(한국원로목회자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음에 상처 받고, 지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여름산타를 만나 다시 한 번 삶에 용기를 얻고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슴까지 시리지는 겨울, 사

김진영 기자



지난 8월 12일 미주리에 소재한 포트레오나드 우드 군 기지의 메인포스트 채플에서 드러진 예배의 모습 ©호세 론든 페이스북

### 6개월 간 장병 1,800명 그리스도 영접

#### 현지 군목 “광범위한 부흥의 일부분에 불과” 간증

약 6개월 간 미국 미주리에 소재한 군 기지에서 1,800명 이상의 장병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목 호세 론든 대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400명의 군인들이 이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포트레오나드 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부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론든 대위는 “오늘 380명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3번의 예배를 통해 훌륭하고 명확하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토니 체흐 군목께도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2018년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약 1,839명의 장병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밝혔다.

론든 대위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트레오나드 우드의 메인포스트 채플에서

장병들이 예배 음악에 맞춰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주리 포트레오나드 우드에 소재한 우리 군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강력하게 경험했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미국 전역과 세계에 동일하게 일어나길 기도한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지난 7월 29일 그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드러진 3번의 예배를 통해 약 307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7월 말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1,459명이었다.

지난 주에 론든 대위는 수 많은 장병들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을 함께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 네팔, 기독교 겨냥한 반개종법 시행

####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기도제목 공유하고 기도 요청

네팔 정부가 8월 15일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반(反)개종법’은 과거 힌두 왕국이었던 네팔에서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기 위해 작년에 제정했는데, 올해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네팔에서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소수 기독교인은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힌두교를 제도화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시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기독교 지도자들이 표적이 되어 체포나 기소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든 콘웰(Gordon-Conwell) 신학교는, 네팔 교회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폴리 현숙 대표는 “네팔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에 의하면, 정부의 힌두 세력들이 즉시 수감시킬 기독교 지도자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VOM과 동역하는 지도자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이 동역자들은 수천 개의 교회 개척 사역을 감독해왔다.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는 힌두 세력의 표적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폴리 현숙 대표는 “네팔 형제자매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기도도 필요하다”면서 “그 법이 시행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 동성애 반대 제빵업자 또 소송 당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미국 콜로라도 주 제빵업자 잭 필립스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잭 필립스는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필립스를 대신해 소송에 나선 단체는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필립스가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수호연합은 “필립스가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이긴 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콜로라도 주의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대법원에서 필립스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주는 필립스를 박해하기 위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콜로라도 주 시민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필립스에게 외관이 파란색이고 내부가 분홍색인,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필립스는 “성(남성 또는 여성)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인식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축하하기 위해 이같은 디

자인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자유수호연합은 “필립스를 타겟으로 한 주정부의 계속되는 고발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같은 위헌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에 대해 7대 2로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는 헌법이 요구하는 종교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성 부부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필립스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웨딩케이크를 주문했지만 필립스는 이를 거부했다.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콜로라도 주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콜로라도 주 법원은 필립스의 주문 거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대웅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카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현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북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시기를 임의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first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n.org



## 보고싶다! 공군 전우여!

**1961~1970년도에  
수원, 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한 사병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락처 : 차수철(병144기)  
(213)200-653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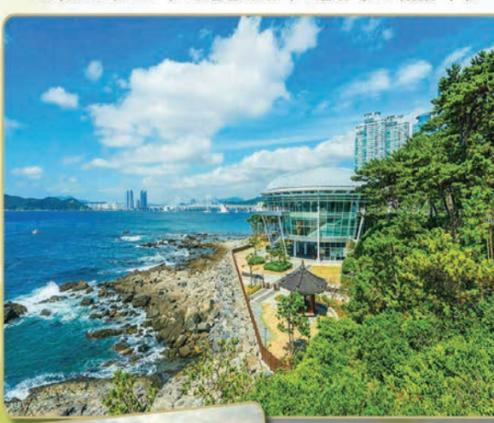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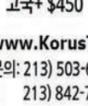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시카  
213) 842-7079 JAY LUM








##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는 오윤철 목사가 최근에 출판한 책 이름입니다. 오 목사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춘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는 아들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변하지 않은 아들과 씨름하는 중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었을 때 또한 아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변화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변화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울림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를 잘 압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가 주는 유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변화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원숙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숙이란 무르익음입니다. 원숙함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변화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반면에 변질은 좋지 않습니다. 변질은 전보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될 수도 있고,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발효된 음식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부패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변화란 좋은 것입니다. 변화란 여름에 신 맛 나던 푸른 사과가, 가을에 단 맛 나는 붉은 사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발을 씻는데 사용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란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에서 최상의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고통이 심화되기 전까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변화를 자극하는 촉매제입니다. 둘째, 꿈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꿈은 변화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셋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넷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다섯째, 책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하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잘 안내해 줍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또한 성경과 함께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변화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고통, 꿈, 만남, 사랑, 그리고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함께 만날 때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성경님의 도우심과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훈련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변화가 창조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변화와 성도님들의 변화와 성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선 행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도 커피 한 잔을 사러 가서 돈을 내려는데 종업원이 제 앞에 있던 손님이 이미 제 것까지 계산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순간 “나한테 왜?”라는 생각이 들면서, 랜스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번 일 외에도 예전에 두어 번, 누가 돈을 대신 지불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S사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2014년도에는 무려 11시간 동안 378명이 바로 뒤에 오는 손님의 커피 값을 대신 지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3번이나 선행을 받으면서도, 연이어 뒷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아서 인 것 같기도 하고, 선행을 받은 들뜬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뒷사람 커피 값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뒷사람이 자기 것만 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 해 국방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6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이 540억 달러라고 하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드러나는 이유 외에 미국의 기부 문화, 선행 문화도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정서가 국민의식 지면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S사 커피 전문점에서 곧잘 일어나는 릴레이로 커피 값을 지불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한 문화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기도 하지만, 세상 분들도 다 아는 세상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야박해서 되겠습니까?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릴레이 커피값 내주기부터 말입니다.

## 기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박 성 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S. D. 고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일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이론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시대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갔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엘리야와 다니엘이 그러했으며,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

하기 전 40일을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매일 새벽 홀로 기도의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방향을 결정할 그 중요한 밤에도, 그는 겔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모든 사역의 기초와 원동력이 됨을 손수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요, 모든 부흥과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부를 걸 때 개인의 인생도 살아나고, 교회도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니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딤키리스트만은 “무릎을 꿇음으로 얻어진 능력은 기독교 2천년 간의 다른 모든 힘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샬롬!

신간 도서

복음과 생명

서형섭 | 이레서원 | 352쪽

생명 없던 묵회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연함을 체험한 (롬6:4) 저자의 이야기. 이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 속에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한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생명의 실재인 하나님과의 사귀인 말씀 묵상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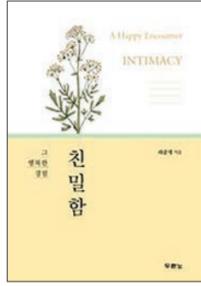


추천 도서

주님과 친밀함 경험해야, 사람과도 친밀함 누리죠

5년 만에 한국 돌아와 <친밀함> 펴낸 라준석 목사

청년사역자로, 대형교회 총괄수석목사로, 그리고 이민교회 담임목회자로 나름 화려한 길을 걸던 목회자가 '개척은 안 된다'는 대한민국의 서울, 지척에 대형교회들이 즐비한 강동에서 새롭게 교회 문을 열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이라는 시구(詩句)가 웬지 떠오르는 그는, 뭔가 초탈한 듯 느껴졌으나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10여년 만에 펴낸 책 제목도 <친밀함>이다.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을 모토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 목사를 만났다.



친밀함 라준석 두란노 | 180쪽

-이번 책 <친밀함>을 10여년 만에 내셨습니까.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보니,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역자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잡힌 것이 '친밀함'이었습니다. 전에는 관계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모아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말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 성경에 '친밀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책을 뒤져봤는데,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각자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설교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고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행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면 일 자체가 힘들

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느낍니다. 짜증내고 힘들어 하기도, 어떤 위치에서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꾸로 일도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니 일도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도 그렇고요.

일하기 위해 친해진 건 아니지만, 친밀함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경험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과도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목회자도 태도가 바뀝니다. 죄를 싫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그럼에도 친밀하

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에서 여러 결정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경험하다 보니, 이번에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해도, 이를 말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친밀함을 많이 경험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 동안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쳤지만, 최근에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한 차례 녹음했는데, 또 한 번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느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친밀함을 느낍니다.

-독자들이 이 책 <친밀함>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말씀과 삶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썼습니다. 책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글로 끝나지 않고 경험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 앞에 '그 행복한 경험'이라고 했는데,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 사랑하고 싶고 그만 기다리고 싶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사랑하고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하는 행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존 맥아더 | 성경의 역 | 코리아닷컴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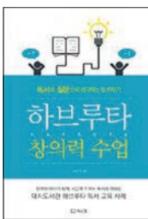
저자의 이사가 53장 강해로, 이사가가 예언한 메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 복음서를 통해 확증한다. 구약에 예표된 메시야와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교차해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알게 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실 전능자, 나와 하나님 사이 중보자의 이야기 말이다.



하브루타 창의력 수업

유순덕 | 리스컴 | 216쪽

대치도서관의 관장인 저자가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물.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논술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사고력을 확장해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졌다.



올인원 사도신경

권율 | 세움북스 | 92쪽

올인원 시리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 책 제목처럼 한 권에 끝내주는 책자다. 이 책은 사도신경에 대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며 워크북과 해설서가 한 권에 들어있지만 매우 얇게 구성되어 부담이 적다.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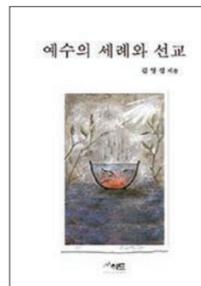
현대 교회의 위기, 세례의 소외에서 비롯됐다

현대 교회의 위기가 '세례의 소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담은 <예수의 세례와 선교>가 출간됐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세례'를 진정한 세례로 여긴 나머지, '물세례'를 구원 이후 하나의 걸치레 의식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경시하는 이 물세례가 바로 성령세례임을 논증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다변화로 기독교는 본의 아니게 묵회와 선교를 별도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역을 펼치고 있으나, 저자는 "본질상 묵회와 선교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례'가 있다.

저자는 "묵회의 변질에는 세례의 변질이 따라오고, 선교의 변질 역시 세례의 변질이 수반된다"며 "반대로 묵회와 선교의 회복은 세례의 위상과 지위의 복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그리고 2천년 기독교 역사 속 세례, 특히 급



예수의 세례와 선교 김영심 엠씨드 | 235쪽

진주의로서 재세례파 등을 소개한 뒤, 세례를 통한 교회의 일치와 묵회자들의 선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으로서의 선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에 들어 세례라는 이 강력

한 의식은 보편화된(catholic) 관념에 함몰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중세 교회로 회귀한 일면이 있다"며 중세 말기 등장한 재세례파를 심층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오늘날 바람직한 세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

저자는 '질병치유의 사례 연구를 통한 선교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주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2005년 대전에서 겨자씨 교회를 설립하고 '세례의 본질과 선교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화를 중점 사역으로 삼고 실천묵회와 이론의 조화를 소명을 여기고 있으며, 2015년 태국에 메솿 겨자씨교회와 선교센터, 직업기술학교와 기숙사 등을 건립했고, 2016년에는 미안마 타 키투병원 협력 지원사업을, 2017년에는 일본에 후쿠시마 겨자씨교회를 설립하고 볼리비아에 리버트리스쿨 기숙사도 세웠다.

이대용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단기간에 의한 맞춤형레슨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 SMOG •INSPECTION
- TUNE-UP •BRAKE
-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 “교회와 소통하고 교단과 연결하는 교량 역할”

## 미국장로회 한인 코디네이터 심수영 목사

애틀랜타새교회를 개척해 22년 간 섬겼던 심수영 목사가 7월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다. 마지막 예배에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적지 않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동안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그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은혜의 장이 됐다. 심수영 목사는 사임 이후 한달간 쉼과 재정비의 기간을 가진 뒤, 곧바로 미국장로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국내선교부 한인 코디네이터로 미국 내 한인교회들을 아우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 교단 내 ‘마당발’로 단단히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차세대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작정이다.

**-갑작스런 사임발표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며 눈물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금은 의외의 행보인데,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그동안 청빙이나 다른 제안에는 한 눈 판 적이 없었다. 20년 넘게 새교회 사역을 돌아보니 감사함이 크고, 아쉬움도 물론 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반성하는 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새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할 수도 있지만 교단 내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결정적으로 절 움직였다. 교단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리더십’ 아닐까? 차세대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에 목회

후반부를 걸어볼 계획이다.

**-미국장로회(PCA) 내 한인교회의 위상은 어떠한가?**

PCA 교단에 속한 5천명 가량의 목회자 가운데 한인 목회자들은 9개 노회 300교회에서 사역하는 600-700명 가량이다. 전체 15% 이상을 차지하는데 소수민족 가운데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 교단 소속 최대 교회 두 개가 한인교회인 워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다. 교단에서 몇년새 특별한 일들도 있었는데, 지난해 총회 의장이 한인 2세였고, 2년 전에는 PCA 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선교부 해외선교국 최고(最高) 코디네이터가 한인 2세가 됐다. 한인 목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 동시에 이제 우리가 중심에 서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할까. 교단 자체가 정치적이지만 않으면서 보수적인 신앙유산을 이어가려는 동시에 인종적, 문화적으로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로 사역하게 될 국내선교부 한인 코디네이터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일단 국내선교부는 교단 산하 미국 내 일어나는 모든 선교에 관한 것을 다룬다. 교회갱신(Church Renewal), 교회개척(Church Planting), 선교적 협력(Missional Partnership)으로 크게 사역을 나눌 수 있는데, 개교회를 비롯해 교회와 교회, 교회와 지역사회 전방을 아우르는 수 십개의 사역과 수십 명의 스태프가 있다.

“한인 코디네이터”는 이런 일들에 한인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펀드레이징 하면서 한인교회들의 인식변화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교량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단 내 수 십년간 노하우가 쌓인 좋은 프로그램과 기회가 많음에도 한인교회의 참여율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인 1세 목사님들은 목회현장에 바빠 교단 일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동참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본다. 이를 연결해 줄 인적자원도 부족했고, 참여를 북돋을 만한 계기나 도전도 미미했던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인교회들 내에서도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인 목회자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다. 교단 전체적으로도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느낀다. 이제 높아진 위상만큼 한인교회가 비전을 갖고 리더로서 영향을 끼쳐야 할 때다.

**-구체적인 사역 계획이 있다면?**

기도하는 제목은 세 가지다. ‘커넥트(Connect)’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그리고 ‘커밋먼트(Commitment)’다. 먼저는 제 자신부터 미 전역 한인교회들을 방문해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현장 목회자들이 교단에 바라는 점, 사역의 어려움, 지역사회에 놓인 교회의 현실적인 고충과 도전 등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다. 이 사역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도전은 목사님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 일인데, 그레도 20년 이상 사역하며 ‘마당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9개 노회 한인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이 사역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한다. 은사 테스트에서도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으로 나왔다(웃음).



PCA 국내선교부 한인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게 될 심수영 목사와 국내선교부 디렉터 폴 한(Paul Hahn) 목사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교단에서 한인교회에 해줄 수 있는 점, 교회와 목회자의 상황에 맞는 교단 내 프로그램과 서포트 등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교단에서 한인교회에 바라는 점, 함께 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총회 참여와 교단 헌금 등을 교육하면서 서로를 더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국내선교부 내 한인교회 사역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고, 제가 다 할 수도 없는 일기에 다른 스태프들도 고용해 함께 일해나가야 한다. 시작하는 재정은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교회들로 하여금 교단 상 회비를 내도록 해 선교사처럼 후원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웃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좇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에게는 ‘안정적인 목회’ 자체가 버리기 힘든 ‘배’와 ‘그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목숨 걸 일이라고 생각하자 결심이 확고해질

고, 저를 잘 아는 아내도 동의하고 환영해줬다.

**-마지막으로 새교회를 떠나시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던우디 아파트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애착이 있는 교회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섬길 수 있던 것이 감사였다. 흑여 은퇴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을 버려두는 느낌을 줄까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제가 사임하는 일이 하나의 기회이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척한 목사가 22년을 함께 했고 떠나는 지 금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얼마나 건 강한가 스스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후임이 잘 세워져 아름답게 이어가고 저 역시 열매있는 교단일을 하게 되길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했다.

앤더슨 김 기자

## #미투 운동이 교회에 끼칠 영향 5가지

미국 남침례회 교회성장연구소 라이프웨이의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미투 운동이 교회에 끼칠 영향 5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미투 운동은 2018년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영향은 연예계, 정치, 기업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에서 느껴진다.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더 많은 교회가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룰’을 채택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룰’은 본질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단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올드하고 율법주의적이며 불공정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 이 관습이 이전에 받아들여졌다면 피해자들이 덜 나왔을 것이다. 상담이나 여행 및 회의가 변화될 것이다.

**2. 배경 조사를 위해 #미투 질문이 교**

회에 더 많이 추가된다.

예비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에 대한 배경 조사가 이미 많이 있다. 신용, 법률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배경 조사가 이제는 일반적이다. 교회가 역사상 개인과 교회에 수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장래 목회자와 교직원에게 미리 질문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3. 작은 교회는 교회 사무실에서 두 사람만이 있지 않도록 변화를 일으**

킬 것이다.

많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사무실에 두 명뿐인 사람, 일반적으로 목회자와 어시스턴트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이 반대되는 성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규모 교회에서도 (또는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추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교회 직원과 교인들에게는 여행 관행이 변화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룰’은 짧은 거리에서

도 남성과 여성이 단 둘이 여행하는 것을 배제한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5. #미투 운동을 촉진시키는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미투 운동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었다. 교회는 그 변화의 일부다. 교회에서 관례가 바뀐 뿐만 아니라 언어와 태도도 바뀔 것이다. 바라건대, 변화는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여성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강혜진 기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확인 재판 판결문 공개

## 교회의 목사 청빙권 vs 교단의 제한 유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판결문이 공개됐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와 13인이 전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표결에 의해 8대 7로 지난 8월 7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세습이라는 용어는 언어도단’

재판부는 먼저 소위 세습방지법이 나와있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을 언급했다. 제1호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목회지 대물립(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습이라는 용어는 실제도 없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다”며 “실제로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 방법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인 세습이란 용어는 헌법 규정에 없고, 목사 청빙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목회지 대물립 혹은 세습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은퇴하는?’ ‘은퇴한?’

두 번째 쟁점으로 해당 목회자 청빙 직전 은퇴한 목사에게만 이 법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린, ‘은퇴하는’ 문구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재판부는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는 명백하게 다른 증거가 발견된다”며 “이전에는 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있었으나, 개정 헌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안이 ‘은퇴한 목사’에게도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삼환 목사는 ‘은퇴한’ 목사이자 ‘은퇴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헌법위원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청빙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해석은 없었다”며 “헌법위원회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지 않은 위임(담임) 목사 또는 은퇴를 준비중인 목사, 시무중인 장로 또는 은퇴를 준비중인 장로, 즉 현재 해당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사와 장로에 대해 세습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세습방지법) 제99회 총회 입법 과정에서 제3호가 부결되면서 일어난 것이므로, 세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향후 이에 대한 수정과 삭제와 추가 즉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며 “이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 ◆세습방지법 자체의 문제도 제기

재판부는 소위 세습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

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돼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돼야 한다”며 “이 점에서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세습방지법)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취지)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며 헌법위원회 해석도 제시했다.

더불어 “위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 판단하진 않았다”며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취지에 따라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과 시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교회 정관과 배치되는 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듯 교인들은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며 “법원도 교회의 법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적 성격에 대해 교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어, 법령 교단 헌법이라 하더라도 명성교회의 자치 규범인 정관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총회재판국은 “따라서 작금의 우리 세대에 명성교회의 절차적 하자 없이,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해당 법률의 단서규정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역시, 미자립교회의 목사 청빙권은 가능하고 자립교회인 명성교회의 목사 청빙권은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 ◆소수 의견

판결문에는 청빙이 무효라고 했던 7인의 ‘소수 의견’도 명시하고 있다. 7인의 재판관들은 “법 해석에 있어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며 “세습방지법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2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지교회에 자유가 있지만 교단에 소속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 대법원도 ‘소속 교단에 의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다78990)”며 “명성교회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헌법 규정에 우선하

는 예외규정이자 특별규정인 세습방지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은퇴하는’에 대해서도 “세습방지법을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어떤 연도 말에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에 청빙하지 않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하다”며 “그와 같은 해석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규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세습제도의 방지라는 원래 목적이 형해화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반박했다.

삭제된 3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목회 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해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해당 법률을 신설하기 전 이미 은퇴한 목사 등의 경우에게 세습을 제한하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지, 은퇴할 때까지는 세습이 안 되지만 은퇴식 다음 날부터는 세습이 허용된다는 의도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퇴임한 목사’의 범위를 최소화해 해석할 경우에도, 이 규정의 신설 이후 퇴임하는 목사의 후임으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담임목사를 청빙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그 후임 담임목사가 퇴임한 후 전전임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이 청빙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의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 이후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관련 재판 당시 피켓시위가 벌어진 모습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의술로 주님 사랑 실천하며 보람과 기쁨 누리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4)- 임근섭 한의원장

수더분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임근섭 원장(임근섭 한의원)을 만난 기자의 느낌이다. 기자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임근섭 원장을 몇 차례 만났지만 늘 한결 같은 느낌이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임근섭 원장은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사) 안수집사(현, 안수집사회장)이다. 임 원장은 믿음의 부족을 절감한다. 하지만 맡겨진 일들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임 원장은 한의사로서도 성실하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한의학의 장점인 예방치료에 힘쓴다. 인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이 악화되면 질병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양의학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임 원장은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케 하여 건강을 유지케 한다. 소위 예방의학이다.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성실한 한의사 임 원장을 설명한다.

### 군대생활 중에 교회를 찾다

임근섭 원장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기억이 별로 없다. 늦게 군대를 가면서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하였다.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으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시작된 군대생활에서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다. 인사 기록카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다.

그래서 포병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에 부대 교회를 다녔다. 포병장교의 필수보직 관측장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대장의 인정을 받아 대대 군수장교로 근무했다. 대대 참모장교로 대대 교회를 돕고 섬기게 되었다. 돌아켜 보면 무슨 큰 신앙의 확신이나 믿음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부대 교회에 출석하며 도왔던 것이다.

###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 영적 여행

임근섭 원장은 2001년 결혼한다. 결혼한 아내 김지영 집사는 모태 신앙인이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아가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은 군대 교회를 다닌 덕분이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야기가 달랐다. 아내의 열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가 벅했다. 영양의 덕택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교회를 거쳤다. 이사와 직장 등의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며 교회들을 섬겼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이다. 물론 김지영 집사가 신앙생활을 주도했다. 임 원장은 여전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임근섭 원장은 더 깊이 한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늦깎이 유학생이었다. 마침 학교 관계자들이 열심히 나가는 교회가 있었다. 갈보리믿음교회였다. 초소형 교회였다. 당시 담임이셨던 박형택 목사님 부부의 인자한 사랑과 돌봄 그리고 교회 가족들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다. 박형택 목사님과 갈보리믿음교회는 유학 생활의 고달픔을 이기게 하였다.

그때부터 찬양단을 섬겼다. 늦게 합류한 김지영 집사는 피아노를 치고, 임근섭 원장은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을 인도하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그 시절에 느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찬양단 사역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 교회를 섬기며

임근섭 원장은 현재 갈보리믿음교회 안수집사회 회장이다. 안수집사회는 교회의 일꾼들이다. 안수집사회 회장인 임 원장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저런 일들을 맡아 섬기고 있다. 그는 또 셀(Cell)의 리더로 셀을 섬긴다. 셀의 리더로 셀에 속한 영혼을 섬기고 돌본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찬양단을 섬기며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이다.

교회를 섬기며 많은 축복을 경험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유익함이 많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민 생활의 아픔을 치유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평안하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아주 유익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또 매 주일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된 것도 교회를 섬기며 얻는 축복이다.

### 한의학으로의 진로 변경

임근섭 원장은 우연한 기회에 한민학을 하게 되었다. 아버님이 급성 간염으로 갑자기 작고하셨다. 아들로서 아버님의 신음과 고통 앞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큰 충격이요 좌절이었다. 그래서 고분자 공학도의 길을 접고 의료 계통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접하게 된 것이 한민학이다. 한국에서 한민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왔고 지난 2007년 한민학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하자마자 파티마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경력을 쌓으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보람 있는 한의사 생활

임 원장은 한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얼마 전에 소화불량으로 힘들어 하는 집사님을 한의사의 눈으로 보니 심상치 않았다. 직접 충고하기는 어려워 정밀 진단을 권했는데 간담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90대 어르신께서 계셨다. 연로하신데 어르신께서 미국을 찾은 것은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였다. 가족들은 마음으로 장례식 준비를 하였었다. 그런데 임 원장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다.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어르신분의 건강 회복과 그 가족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입가에 머문다. 참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이다. 이런 일들을 이 지면에 다 옮길 수가 없다. 한의사가 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비전과 기도의 제목

임근섭 원장은 열심히 산다. 늦깎이 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



임근섭 원장

다. 임 원장은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며 공부한다. 침과 한약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임근섭 원장은 한의사로 비전과 꿈이 있다.

우선 미국 주류사회에 한민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인들을 만나기에 용이한 시더사이나이 병원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다.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임근섭 한의원(Lim Acupuncture & Herbs Clinic)에는 유명한 영화배우나 감독들이 심심찮게 찾아와 진료를 받는다. 임근섭 원장은 한민학의 우수성을 확인한 유명인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미국 주류사회 환자들을 치료하기를 소망한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임 원장은 원격기치료와 Tap Acupuncture(두드림 침술)을 개발하여 활용중이다. 특히 Tap Acupuncture는 침을

두려워 하는 미국인이나 아이들을 위해 임 원장이 개발한 치료법이다. 침을 놓아서 치료하는 기법인데 반응이 좋다. 임 원장은 스스로가 개발한 이런 치료법들이 널리 전파되어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임근섭 원장은 기독교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 의료 활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들을 기도한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한다.

임근섭 한의원 원장은 전문 의료인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한다. 특히 기독교 의료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 한국인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함 304면 / 22,000원
  -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 1세트(전7권) 154,000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